



오늘의 날씨와 생활

11월 6일 수요일 음 10월 10일 (2월)

기상정보

맑음



제주도는 맑고 화창한 가을 날씨가 되겠다. 아침 기온은 11~14℃, 낮 기온은 19~21℃로 예상된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0% precipitation for all categories.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times for sunrise (06:56) and sunset (14:39).

Table with 3 columns: 내일, 구름 많음, 13/18℃. Rows show weather and temperature for tomorrow and the following day.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Rows show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월드뉴스

“징용문제 여러 선택지 생각할 수 있다”

文 대통령, 아베 총리에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징용 문제와 관련 여러 가지 해법을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직접 밝혔다. 아베 총리는 5일 보도했다.



대화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태국 방콕에서 아베 총리와 대화할 때 한국인 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선택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5일 보도했다.

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태국 방콕에서 아베 총리와 대화할 때 한국인 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선택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고관을 대화의 한국 측 창구로 삼는 방안도 제시했으며, 아베 총리는 “일한 청구권협정에 관한 원칙을 바꾸는 것은 없지 않지만 대화는 계속하자”고 답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날 대화에서 아베 총리가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거론한 후 “일본의 입장은 이미 전한 대로”라며 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등으로 끝났다는 입장을 재차 설명하자 문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한국 정부가 올해 6월 제시한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구상(1+1안) 이외의 방안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보여준 것이라고 풀이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해결책의) 전부가 아니며 여러 가지 선택지를 생각할 수 있다. 계속해서 대화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허상문의 에세이로 읽는 세상



여행 지갑

여행 때마다 가지고 다니는 조그만 여행 지갑이 하나 있다. 학창 시절에 누군가로부터 선물로 받아서 수십 년째 사용하는 지갑이다.

인도의 산하를, 남미와 아프리카의 머나먼 구석구석까지 다니지 않은 곳이 없다. 여행이란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낯선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여행 중에다 행여나 여권과 현금을 분실할까 봐 수십 번 만지고 또 만지는 지갑인지라 이제는 여기저기 남아 있다. 그래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지갑이 내 여행의 모든 사연과 경로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흔히 여행길에 인생길이고, 인생길이 곧 여행길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여행하는 인간은 ‘호모 비아토르’라 불리었다. 여행길에서는 항상 갈림길에 서 있게 된다.

오늘도 어딘가 여행길을 나서게 되면 여갑없이 이 지갑부터 먼저 챙긴다. 이 지갑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들.

할 수는 없는 것이 삶이고 여행이다. 실수하고 후회로 가득하더라도 우리 앞엔 아직 가지 않은 길이 놓여있다. 사람들은 오직 하나의 인생만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의 인생밖에 모른다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이다.

일비지는 불빛 옆에 앉은 누군가가 깨어나 밖을 내다본다. 어둠 속에는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절규하며 달리는 늑은 기차뿐이다.

이곳저곳에서 여행길을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 인간은 종착역에 이르고 마침내 죽게 될 것이다.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다.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나는 또 여행 지갑과 함께 어딘가로 떠나기 위해 공항으로 달려간다.

이곳저곳에서 여행길을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 인간은 종착역에 이르고 마침내 죽게 될 것이다.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다. 모두가 사는 방식이 다르듯이,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도 다르다.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나는 또 여행 지갑과 함께 어딘가로 떠나기 위해 공항으로 달려간다.

열린마당

바른 주·정차는 우리 안전을 지키는 길



이 기사 상 제주시 건일동주민센터

자동차를 제자리에 바르게 주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동차는 부주의한 운전만이 아니라 단순히 보이는 불법 주·정차로도 우리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관으로 내디딘 첫걸음



천 다혜 제주소방서 오라119센터

올해 제주소방교육대에 입교한 예비 소방공무원 55명은 누구보다도 강렬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외에도 공공의 불편을 방지하고 노약자 등을 배려하기 위해 인도 위, 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지대, 기타지역을 불법 주·정차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서로 다른 55명이 하나가 되는 건 생각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교육과정에 임했다.

행정에서는 기초질서 분야의 하나로 도민들의 바른 주·정차 의식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나 정지선 등은 4대 불법 주·정차구역이다.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으로 거듭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체력단련, 구급교육, 기본 구조훈련, 화재 대응능력 2급 자격 평가를 이용하는 번거로움을 견디면서 바른 주·정차를 실천하는 그 날을 꿈꾸어 본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

Jeju City Government notice regarding parking regulations and public works.

Jeju City Government notice regarding public works and safety.

Jeju City Government notice regarding agricultural and rural extension services.